

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의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에 대한 강연 리포트

이번 강연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.

먼저 학습 기반 인공지능의 출현이다. 김대식 교수는 인공지능의 발전사를 되짚으며, 1956년 처음 AI가 기획된 이후 오랜 기간 정체기를 겪었던 인공지능 분야에 제프리 힌턴 교수의 학습 기반 인공지능 방법론이 등장하면서 커다란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다. 이 연구로 인해 힌턴 교수는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는데, 김대식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.

“이 연구는 노벨 물리학상급 연구는 아니다. 하지만 이를 받게 된 이유는 첫번째로 현대 물리학에 그 정도로 새로운 결과가 없다라는 의미이고, 두번째로 그 정도로 학습기반 인공지능이 인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기술이다.”

이 발언은 정말 듣고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생각해봐도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.

다음은 GPT의 출현이다. 2017년 구글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언어의 규칙을 학습하는 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은 단일 기능(unimodal)에서 복합 기능(multimodal)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. 이러한 발전은 조직과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, 인간의 사회적 관계 전반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. 이에 대해 김대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.

“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친구 중 한 명이 “나 어제 저녁에 사람하고 두 시간 대화를 나눴어.”라고 한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”

미래에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‘굳이?’ 라는 생각이 들만큼 많이 변화할 것이고, 단순히 경제, 일자리, 사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, 거시적으로는 정치, 그리고 더 크게는 인간성, 그리고 더 크게는 인류의 역사에 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.

마지막으로 진짜 AI 사용법이다. 이제 인공지능은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 이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. ‘인공지능 때문에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, 내 회사가 망하고, 내 인생이 망한다’가 아니라 ‘내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보다 먼저 이해한 내 경쟁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다’를 받아드려야 하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. 이에 대해 김대식 교수는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체험하고 익히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.

“첫째, AI 에이전트를 직접 사용해보는 것이다. 기존 AI가 검색을 대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, 에이전트는 실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기 때문이다.

두 번째로 바이브 코딩 해보기, AI로 코딩을 직접 해보아야 한다. 과거에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바이브 코딩을 꼭 실천하여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를 우리의 손으로 풀 수 있는 훌륭한 기능을 경험해보아야 한다.

세 번째로 5분짜리 단편 영화 만들어보기. AI 모델이 복합 기능이 되며 스토리도 쓰고 사진, 영상 또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서사, 스토리, 표현하고 싶었던 꿈을 AI를 사용해서 5분 ~ 10분짜리 영상을 만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.”

영상을 만들 때 얼굴이 찌그러지고, 그래픽이 망가지는 경험,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코드가 안돌아가는 경험 등을 겪으면 어느 순간 인공지능에 대한 직관이 생기고, 이를 기반으로 직장이나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.

이번 강연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현재,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미래에 대비하는 방향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. 인공지능의 대중화로 인해 많은 직업이 변화하거나 사라지고 있지만, 이를 두려워하거나 탓할 때가 아니라 경쟁자보다 더 빠르게 인공지능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. 또한 김대식 교수가 제시한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직접 시도해보며 AI에 대한 직관을 기르고, 나만의 AI 활용 방식을 구축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.